

진표[眞表]

신라에 미륵오는 길을 열다



1 개요

진표(眞表)는 완산주(完山州) 만경현(萬頃縣) 사람이다. 그는 철저한 참회 수행자였으며, 대중 교화에 힘써서 신라에서 미륵신앙이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금산사(金山寺)를 중창하였으며 발연사(鉢淵寺) 등을 창건하였다.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정착시켜 불교의 대중화에도 이바지하였다.

2 투철한 수행으로 지장보살을 만나다

진표는 완산주 만경현, 지금의 전주 지역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진내말(眞乃末)이며 모친은 길보랑(吉寶娘)이다. 진표가 출가하게 된 계기는 개구리 때문이었다. 평소 낚시고 화살을 잘 쏘던 진표가 어느 날 논둑에서 개구리 30마리를 잡아서는 버들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두었다. 그리고 다른 사냥을 하다가 개구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다. 이듬해 봄에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물속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를 듣고 보니, 그때 그 개구리 30마리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진표는 자신의 행동으로 개구리들이 고통받으며 울고 있는 모습에 깨달은 바가 생겨 출가의 뜻을 품게 되었다.

[관련사료](#)

그리하여 12세에 금산사(金山寺) 승제법사(崇濟法師)의 제자가 되었는데, 부지런히 수행해야만 계를 받을 수 있다는 승제법사의 가르침에 여러 산을 유람하다가 선계산(仙溪山)의 부사의암(不思議庵)에서 온 몸을 던져 참회하고 수행하는 망신참법(亡身懺法)을 통해 계를 얻겠다고 결심한다. 진표는 하루 양식으로 쌀 다섯 홑만을 삼으면서도 그중 한 홑은 떨어져 쥐를 기르는 등 철저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스스로 몸을 돌에 처서 팔이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도록 수행하여, 마침내 지장보살을 뵈고 정계(淨戒)를 받았다. [관련사료](#)

3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금산사를 중창하다

진표는 미륵보살을 친견하겠다고 결심하고는 영산사(靈山寺)로 옮겨가서 같은 방법으로 수행에 전념한다. 결국은 철저한 참회수행을 통해 삼매상태에 이르러 미륵보살을 직접 뵈게 되는데, 이때 미륵보살로부터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과 간자 189개를 받게 되었다. 미륵보살은 진표에게 189개 간자 중에 8번째와 9번째의 두 간자는 바로 자신, 즉 미륵의 손가락 뼈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힘쓸 것을 당부한다. 진표가 전해 받은 『점찰선악업보경』은 다른 기록에서는 스승인 승제법사로부터 『공양차제비법』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관련사료](#) 이후 이 경은 진표의 대중 교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진표는 이후 처음 승제법사의 제자가 되었던 금산사로 돌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금산사 중건에 힘썼다. 마침내 금산사 중건을 마쳤을 때 다시 미륵보살이 감응하여 진표에게 계법을 주었다. 이에 진표는 764년(경덕왕 23)에 미륵장육상을 주조하여 완성하여, 766년(혜공왕2)에 금당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금당의 남쪽 벽에는 미륵보살이 내려와 계법을 주는 모습을 그렸다. 진표는 이곳에서 매년 강단을 열고 불법을 펼쳤다. [관련사료](#) 이후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중심 사찰이 되었다.

4 대중 교화를 이어가다

진표는 수도 경주가 아닌 이외의 지방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부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삼국유사』 진표전간에서는 아슬라주(阿瑟羅州)에서는 물고기와 자라에게 불법을 강의하고 계를 주었다고까지 한다. [관련사료](#) 이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진표의 교화 활동이 하층민에게까지 미쳤음을 알려준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진표가 금산사에서 나와 속리산으로 향할 때 소가 끄는 달구지를 탄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소가 진표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진표가 계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 불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소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게 된 소의 주인이 그 자리에서 발심하자, 진표가 직접 머리를 깎아주고 계를 주었다고 한다.

진표가 금강산으로 들어가 발연사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열어 7년을 지냈을 때의 이야기도 전한다. 어느 해 이 지역에 흉년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진표는 이들에게 계를 주고 설법함으로써 사람들이 부처를 믿고 계법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자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려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진표의 교화의 대상이 수도 경주

에 살고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보다는 지방의 대중을 향해 있었고, 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려 준다.

진표는 점찰법회를 통해 신라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회하고 계를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뽕은 간자를 『점찰선악업보경』에 따라 개개인마다의 과보의 선악을 점쳐주고, 그 결과에 따라 참회하고 정진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보(業報)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각과 실천을 통해 악한 업보 대신 선한 업보를 쌓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륵보살에 대한 염원을 키워 나갔다.

이와 같은 진표의 대중을 향한 교화의 모습은 경덕왕에게까지 알려졌다. 경덕왕은 진표를 궁궐로 맞아들여서 진표로부터 보살계를 받고, 곡식 77,000섬을 시주하였다. 이때 경덕왕 뿐만 아니라 왕후와 왕의 외척들도 모두 계를 받고 비단 500단과 황금 50냥을 시주하였다. [관련사료](#) 이처럼 진표는 상층민, 하층민을 막론하고 많은 신라 사람들을 교화시켰고 그들의 귀의를 받았다.

5 진표의 죽음과 그 이후

진표는 말년에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발연사로 옮겨와 수행하며 지냈다. 그는 입적할 때 쯤 절 근처의 큰 바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입적하였다고 한다. 제자들은 돌아가신 곳에 뼈가 흩어지려 할 때까지 모시다가 흙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소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12세기 초까지도 진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진표의 뼈를 찾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진표의 교화 활동의 영향력은 신라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 그를 계승한 제자들의 활약이 이어졌고 고려시대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진표의 제자들로는 영심(永深)·보종(寶宗)·신방(信芳)·체진(體珍)·진해(珍海)·진선(眞善)·석충(釋忠)·융종(融宗)·불타(佛陀) 등의 다수의 이름이 전해진다. 그중 영심은 진표에게 직접 간자를 전해 받고 속리산에서 길상사(吉祥寺)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헌덕왕의 아들인 심지(心志)는 15살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영심이 속리산에서 점찰법회를 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진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수행을 통해 영심으로부터 간자를 이어 받아 동화사를 세우고 간자를 모셨다. 또 다른 제자인 석충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에게 진표의 가사와 계간자 189개를 바쳤다고 하여 고려 왕실과 진표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그리고 진표로부터 전해진 간자가 동화사에 모셔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사료](#)

이처럼 철저한 수행과 지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륵신앙을 고취하며 대중들에게 다가섰던 진표는 당대에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기억되고 고려시대까지 영향력을 지속했다. 그리고 진표와 그의 제자들의 행적이 남아 있는 금산사를 비롯한 동화사나 속리산 길상사 등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중심처로 인식되고 있다.